



임채우

점과 철학,

『주역』의 용어와 8괘의 개념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점과 철학, 『주역』의 용어와 8괘의 개념

『주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호를 ‘괘’. 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 8괘의 개념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 목표

- 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 8괘와 64괘의 구분
- 8괘의 형성 과정
- 8괘의 괘명(卦名)과 괘상(卦象), 괘덕(卦德)

강사 소개

• 임채우

북경대학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철학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

역서 『왕필의 노자주』 『주역 왕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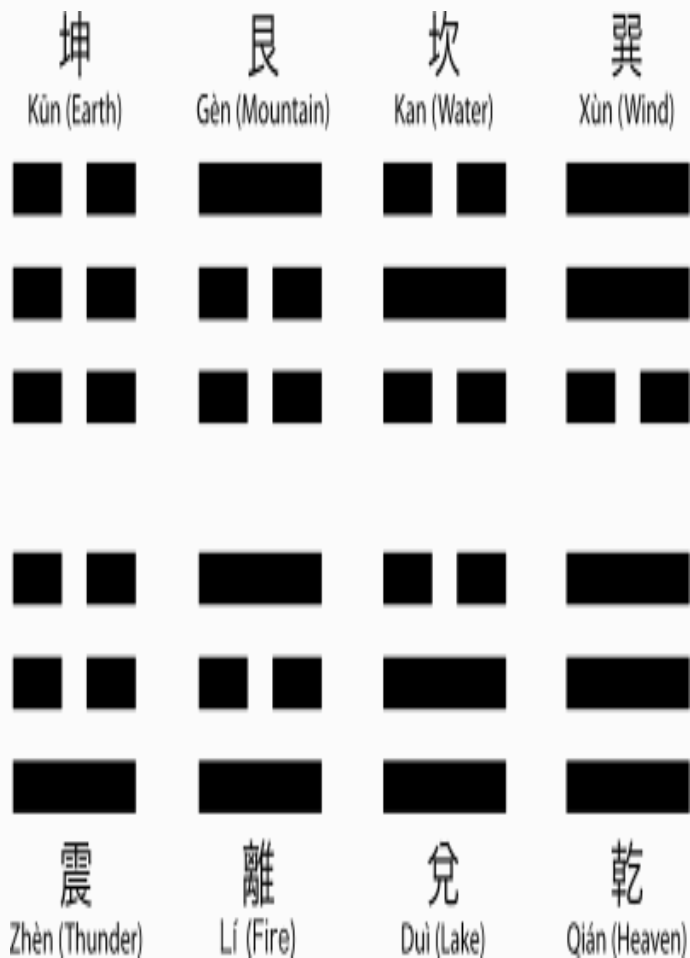
『언어의 금기로 읽는 중국문화』 등

강의 보기



- 제목 : 점과 철학, 『주역』의 용어와 8괘의 개념
- 강사 : 임채우 (교수)
- 구성 : 18분

지식 노트



괘

『주역』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음효(陰爻)와 양효(陽爻)로 만들어진 부호.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伏羲)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 양효는 「—」, 음효는 「--」로 표기

지식 노트

節彼南山維石巖巖赫赫師尹民具爾瞻憂
 不敢戲談國既卒斬何用不監節彼南山有
 赫赫師尹不平謂何天方薦瘥喪亂弘多民
 僭莫懲嗟尹氏大師維周之氏秉國之均四
 天子是毗俾民不迷不弔昊天不宜空我師
 親庶民弗信弗問弗仕勿罔君子式夷式已
 殆瑣瑣姻亞則無恤仕昊天不傭降此鞠訕
 惠降此大戾君子如屆俾民心閱君子如夷
 遠不弔昊天亂靡有定式月斯生俾民不寧
 醒誰秉國成不自爲政卒勞百姓駕彼四牡

『주역』(周易)

유가의 주요 경전인 삼경(三經)의 하나. 불운을 몰아내고 길운을 얻기 위해 행했던 점복의 원전으로, 음과 양의 운동을 통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풀어낸다. 주(周)대에 만들어져 점서로 쓰였다 하여 『주역』이라 불린다.

이미지: 송나라 때의 판본

지식 노트

☷ 곤(坤):地	☶ 간(艮):山	☵ 감(坎):水	☴ 손(巽):風	☳ 진(震):雷	☲ 이(離):火	☱ 태(兌):澤	☰ 건(乾):天	상괘 하괘
☰ ☷ 11. 地天泰	☶ ☰ 26. 山天大畜	☵ ☰ 5. 水天需	☴ ☰ 9. 風天小畜	☳ ☰ 34. 雷天大壯	☲ ☰ 14. 火天大有	☱ ☰ 43. 澤天夬	☰ ☰ 1. 乾爲天	☰ ☰ ☰(乾):天
☱ ☷ 19. 地澤臨	☶ ☱ 41. 山澤損	☵ ☱ 60. 水澤節	☴ ☱ 61. 風澤中孚	☳ ☱ 54. 雷澤無妄	☲ ☱ 38. 火澤睽	☱ ☱ 58. 兌爲澤	☱ ☱ 10. 天澤履	☱ ☱ ☱(兌):澤
☲ ☷ 36. 地火明夷	☶ ☲ 22. 山火賁	☵ ☲ 63. 水火既濟	☴ ☲ 37. 風火家人	☳ ☲ 55. 雷火豐	☲ ☲ 30. 離爲火	☱ ☲ 49. 澤火革	☰ ☲ 13. 天火同人	☲ ☲ ☲(離):火
☳ ☷ 24. 地雷復	☶ ☳ 27. 山雷頤	☵ ☳ 3. 水雷屯	☴ ☳ 42. 風雷益	☳ ☳ 51. 震爲雷	☲ ☳ 21. 火雷噬嗑	☱ ☳ 17. 澤雷隨	☰ ☳ 25. 天雷無妄	☳ ☳ ☳(震):雷
☴ ☷ 46. 地風升	☶ ☴ 18. 山風蠱	☵ ☴ 48. 水風井	☴ ☴ 57. 巽爲風	☳ ☴ 32. 雷風恒	☲ ☴ 50. 火風鼎	☱ ☴ 28. 澤風大過	☰ ☴ 44. 天風姤	☴ ☴ ☴(巽):風
☱ ☷ 7. 地水師	☶ ☱ 4. 山水蒙	☵ ☱ 29. 坎爲水	☴ ☱ 59. 風水渙	☳ ☱ 40. 雷水解	☲ ☱ 64. 火水未濟	☱ ☱ 47. 澤水困	☰ ☱ 6. 天水訟	☱ ☱ ☱(坎):水
☷ ☷ 15. 地山謙	☶ ☶ 52. 艮爲山	☵ ☶ 39. 水山蹇	☴ ☶ 53. 風山漸	☳ ☶ 62. 雷山小過	☲ ☶ 56. 火山旅	☱ ☶ 31. 澤山咸	☰ ☶ 33. 天山遯	☶ ☶ ☶(艮):山
☷ ☷ 2. 坤爲地	☶ ☷ 23. 山地剝	☵ ☷ 8. 水地比	☴ ☷ 20. 風地觀	☳ ☷ 16. 雷地豫	☲ ☷ 35. 火地晉	☱ ☷ 45. 澤地萃	☰ ☷ 12. 天地否	☷ ☷ ☷(坤):地

8괘(3획괘)를 중첩시켜 만든 64괘(6획괘)

(괘사, 효사의 '주석'에 해당하는) 계사전, 설괘전 등에서는 8괘가 먼저 있고 64괘가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괘사'와 '효사'의 본뜻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64괘가 먼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의 노트

괘

『주역』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음효(陰爻)와 양효(陽爻)로 만들어진 부호.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伏羲)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 양효는 「-」, 음효는 「--」로 표기

『주역』(周易)

유가의 주요 경전인 삼경(三經)의 하나. 불운을 몰아내고 길운을 얻기 위해 행했던 점복의 원전으로, 음과 양의 운동을 통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풀어낸다. 주(周)대에 만들어져 점서로 쓰였다 하여 『주역』이라 불린다.

8괘(3획괘)를 중첩시켜 만든 64괘(6획괘)

(괘사, 효사의 ‘주석’에 해당하는) 계사전, 설괘전 등에서는 8괘가 먼저 있고 64괘가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괘사’와 ‘효사’의 본뜻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64괘가 먼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복잡한 64괘를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8괘

3획괘를 6획괘보다 ‘작게 만든 괘’라는 의미에서 **소성괘(小成卦)**라고도 한다. 또는 **단괘(單卦)**라고 부른다. 6획괘를 대성괘(大成卦), 또는 중괘(重卦)라고도 부른다.

왕필(王弼, 226~249)

현학(玄學)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중국 위나라 시대의 천재 학자. 그가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쓴 『노자』와 『주역』에 관한 주석서는 심오한 노장사상과 주역 사상에 대한 이해의 기틀이 되어 왔다.

주역 관련 주석들을 이해하기 위해 ‘8괘의 개념 체계’를 알아보자.

『주역』에서는 태극이라는 음양 미분의 원형질이 양효와 음효로 분화되었다고 가정한다.

음효「--」와 양효「-」가 세 번 중첩되면 8괘 모양으로 분화된다.

8괘: (순서대로) 건태이진손감간곤

괘에 매겨진 괘수(卦數)는 음양 미분의 태극으로부터 ‘세 번 음양을 분화’시켜 얻은 순서이다.

제1괘: 순양(純陽)으로서 건괘(乾卦)라고 부르고, 하늘(天)이라는 상을 가진다. [일건천(一乾天)]

제8괘: 순음(純陰)으로서 곤괘(坤卦)라고 부르고 땅(地)이라는 상을 가진다. [팔곤지(八坤地)]

제2괘: 태괘(兌卦)라고 부르고 연못(澤)이라는 상을 가진다. [이태택(二兌澤)]

제3괘: 이괘(離卦)라고 부르고 불(火)이라는 상을 가진다. [삼리화(三離火)]

제4괘: 진괘(震卦)라고 부르고 우뢰(雷)라는 상을 가진다. [사진뢰(四震雷)]

제5괘: 손괘(巽卦)라고 부르고 바람(風)이라는 상을 가진다. [오손풍(五巽風)]

제6괘: 감괘(坎卦)라고 부르고 물(水)이라는 상을 가진다. [육감수(六坎水)]

제7괘: 간괘(艮卦)라고 부르고 산(山)이라는 상을 가진다. [칠간산(七艮山)]

괘명과 괘수는 각 괘에 한 가지씩이지만, 괘상은 한 가

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씩이다.

괘덕(卦德)이란, 그 괘가 가지고 있는 덕을 의미

일건천(하늘)의 괘덕은 ‘강건함’

팔곤지(땅)의 괘덕은 ‘순함’

이태택(연못)의 괘덕은 ‘기뻐함(說)’ ※ 說: 말씀 (설),

기뻐할 (열)

→ 『주역』에서는 說을 거의 ‘기뻐 열’로 읽는다.

연못을 대표적인 상으로 가지는 이태택(二兌澤)의 괘

덕은 왜 기뻐하는 것(說)일까?

→ 중국은 물이 매우 귀하기 때문

삼리화(불)의 괘덕은 ‘밝음’

사진뢰(우뢰)의 괘덕은 ‘움직임’

오손풍(바람)의 괘덕은 ‘파고들어감’

『논어』 (論語)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그의 제자들이 어록 형식으로

기록한 유학 경전. 『사서(四書)』의 하나로 꼽힌다.

육감수(물)의 과덕은 '험함'

『주역』은 불안정한 난세에 쓰였기 때문에, 험한 것이 덕이 될 수 있었다.

칠간산(산)의 과덕은 '그침'

→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

팔곤지(땅)의 과덕은 '순함'

학습 요약

- 계사전은 8괘에서 64괘가 나왔다고 보지만, 64괘가 먼저 있고 이를 간단한 형태로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8괘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8괘(3획괘)는 ‘작게 만든 괘’라는 뜻에서 소성괘, 단괘라고 하고, 64괘(6획괘)는 대성괘, 중괘라 부른다.
- 8괘는 음양 미분의 태극이 세 번 음양으로 분화되어서 얻어진다.
- 괘명은 괘의 이름, 괘상은 괘가 가지고 있는 상, 괘덕은 괘가 가지고 있는 덕이다.

인문 퀴즈

1. ‘네 권의 책과 세 권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유교의 경전을 일컫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 중 ‘삼경(三經)’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시경』(詩經) (2) 『서경』(書經)
(3) 『주역』(周易) (4) 『도덕경』(道德經)

2.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유교의 경전인 『역경』(易經)은 주(周)대에 만들어진 점서라 하여 ()이라 불린다. 불운을 몰아내고 길운을 얻기 위해 행했던 점복의 원전으로, ()의 운동을 통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풀어낸다.

- (1) 『가주서』 - 지수화풍 (2) 『가주서』 - 예와 법
(3) 『주역』 - 음과 양 (4) 『주역』 - 도와 덕

인문 퀴즈

3. 세계의 원리를 기술한 책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알려진 『주역』(周易)의 '64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8괘를 중첩시켜 만든 6획괘이다.
- (2) '현학(玄學)의 시조'라 불리는 왕필(王弼)에 의해 만들어졌다.
- (3) 대성괘(大成卦), 또는 중괘(重卦)라고도 부른다.
- (4) 천지만물의 변화를 예측하고, 길흉을 점칠 수 있다.

정답

1. (4) 2.(3) 3.(2)

1. 도덕경은 노자의 저서로, 유학경전과는 거리가 멀다.

3. 왕필이 주석서를 쓰긴 하였으나, 주역 자체는 고대서부터 존
재해왔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http://en.wikipedia.org/wiki/File:Yin_and_Yang.svg

지식노트

- <http://en.wikipedia.org/wiki/File:Trigrams2.svg>
- https://en.wikipedia.org/wiki/File:I_Ching_Song_Dynasty_print.jpg
- http://ko.wikipedia.org/wiki/%EC%97%AD%EA%B2%BD#.EC.A3.BC.EC.97.AD_.EA.B3.84.EC.82.AC.EC.A0.84

점과 철학, 『주역』의 용어와 8괘의 개념

강사: 임채우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